30년 만의 교정인불자 '보금자리' 눈길

8월 21일 안양 선우정사에 개소…200여 대중 축원

지도법사로 선타 스님 위촉
정기법회 · 교육 등 진행예정
"교정인 불자들의 새 구심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마땅한 신행공간 없이 구치소 내 공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불자교정인들이 깨어있는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과 법회를 열고 정진하겠습니다."

1994년 창립 이후 불자교정인들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김행규)가 8월 21일 안양 선우정사에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는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 교화에 앞장서 왔지만 정작 교정인들만을 위한 신행공간이 없었다.

교불련이 안양 선우정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의 불심회에서 경비대 소대장으로 불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김행규 회장은 2005년 인근 사찰을 방문하게 된다. 재가자들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주변 스님들의 도움을 요청코자 함이었다.

당시 선우정사는 서울구치소 근처 작은 사찰이었다. 하지만 선타 스님은 흔쾌히 팔을 걷고 나섰다. 교정 포교에도 앞장섰던 선타 스님은 사회복귀과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불심회와 함께 재소자 포교를 진행했다. 선타 스님을 비롯해 의왕 청계사 성행 스님과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 등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서울구치소불심회는 꾸준히 포교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08년 선우정사가 도심으로 이전하게 됐다. 인덕원 학의천변의 보궁빌딩이란 곳이었다. 김행규 회장은 이 보궁빌딩에 교정인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공간을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타 스님에게 전했다. 문경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의 맏상좌로 도심 포교 활성화 원력을 지닌 선타 스님이기에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지도법사 선타 스님(왼쪽 두 번째)과 김행규 연합회장(왼쪽 세 번째),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왼쪽 네 번째) 등이 개소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지도법사로 위촉된 선타 스님은 "저희가 인연을 맺은지 20년이 다되어 간다. 서울구치소를 집처럼 다니며 교정인불자들과 재소자들을 지도해왔는데, 이렇게 전국조직 지도법사로 위촉되어 의미가 깊다"며 "불교는 평화의 종교다. 내면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등불을 켜고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김행규 회장은 "교정인불자들이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일일신우일신, 재소자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지니는 법을 전하여 사회복귀 후에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자"며 "우리도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는 선우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보고 같은 건물의 사무실에서 각종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선우정사에서는 개소식에 앞서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초청 법회와 함께 황금진신사리 친견도 진행됐다.

청년불자와 함께, '상월결사' 은해사서 평화순례

8월 24일 5차 평화방생순례 봉행
역대 최다인원, 1600여 대중동참

동국대 건학위 장학생 50여명 참석
불자대중과 우중행선, 백흥암 참배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평화방생순례에 청년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우중행선을 펼쳤다.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8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진행한 5차 평화방생순례에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1600여 불자들이 모여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뿐만 아니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30여 명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흥암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박수를 받으며 은해사로 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국제선센터, 대덕사, 안국선원, 전등사, 백담사, 보경사, 관촉사 등 전국 사찰에서 참여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와이즈캠퍼스 총장,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날 순례는 은해사 템플스테이 운동장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사회로 입재했다.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대독을 통해 "올 한해 상월결사의 화두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순례에 앞서 은해사 측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장학금 2000만 원, 상월결사에 인도순례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도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엄중한 시기에 자승 스님께서 위기를 느끼고 포교라는 기치를 걸고 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국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만희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함께 순례대중들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순례를 시작했다.

빗방울이 거세지는 가운데에도 각자 우의를 입고 은해사 산내 암자인 백흥암까지 묵묵히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에서는 스님들이 앞장을 서고, 동국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불자들이 뒤를 따랐다. 땀과 빗방울이 섞여 흘러 내렸지만 표정에서는 환희심이 넘쳐났다.

동국대 국어국문학부 2학년 김승리 학생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생활비를 버느라 자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국대에서 불교정신으로 인재불사에 나서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 순례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불자분들의 마음을 읽게 돼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6차 평화방생순례를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손글씨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상 등 12명에 상패 수여
갤러리나무서 8일까지 전시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손글씨로 담아낸 작품들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 9월 8일까지 전시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은 8월 24일 '불교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 결과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부문에서 각각 선정된 수상자 12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개막했다.

민추본은 6월 초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글씨(캘리그라피) 작품을 공모한 결과 배정인 · 윤자영 · 최수연 씨가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부문에서 각각 총무원장상인 대상에 선정돼 수상했다. 또 통일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는 남욱환, 문수혁, 김지환 씨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추본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인 부문 총 45점, 청소년 부문 500여 점, 어린이 부문 총 59점 등 총 600여 점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혜 통일부 사회문화정책과장은 "수상작 외에도 출품작이 600여 점이라는 데 놀랐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 모든 작품 속에 평화통일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어린이부문 대상을 차지한 최수현 어린이는 7세 최연소수상자로 눈길을 끌었다. 최수현 어린이는 평화통일이라는 글자에 태극기와 무궁화 등 그림을 함께 담아 독창성과 의미 등 모든 기준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공모전 참여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배정인 대상 수상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 남북이 하나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했고 어린이법회와 종립학교를 비롯해 예상보다 많은 출품작들이 접수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평화통일 의식이 희미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없는 힘이 된다. 종단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하는 민추본 또한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겨 초발심을 잃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8월 25일 열린 영화제 개막식에서 사부대중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2022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성황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며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대학원장 이원덕)이 주관하는 2022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8월 25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영화제 증명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이원욱 정각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조직위원장인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개회사, 각계 치사 및 격려사 및 차승재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으로 시작됐다. 영화제는 8월 28일 광우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폐막작(길위에서 길을묻다) 상영으로 마무리 됐다.

노덕현 기자

